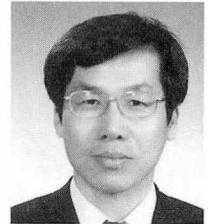




인쇄업계의 현황과 과제

Trend of Printing Industry



이 의 수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인쇄화상전공 주임교수

작금의 인쇄산업 환경은 그 어느 시기에도 겪어보지 못하였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원인은 “디지털”, “인터넷” 그리고 “친환경”의 용어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관련 기술이 인쇄공정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에서 제판까지의 과정이 일관공정으로 가능해 졌으며 (filmless process), 나아가 디지털 인쇄의 하나인 POD(print on demand) 공정에서는 디자인으로부터 인쇄 및 제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단위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오랫동안 인쇄산업을 유지하여 왔던 많은 경영자, 기술자들이 아날로그적인 감성 판단이 인쇄공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디지털화의 물결을 수용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범용인쇄의 주력은 디지털 기반 인쇄공정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 기술의 접목은 인쇄산업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다. 인쇄의 주문

에서부터 진행과정의 점검 및 품질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상에서 정보교환이 가능해 짐으로써 인쇄산업은 국내는 물론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인쇄환경의 개선은, 인쇄산업이 도심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대규모 사무실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의 경우, 다품종 소량의 인쇄물을 단시간 내에 공급해 주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우 도심의 교통난 등을 고려한 공급시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와 가까운 곳에 인쇄산업이 위치하는 것이며, 이는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다.

이 외에도 도심의 문화 관광이 연계된 고부가가치의 특수인쇄물 제작, 각종 기능성 인쇄물 제작 등도 친환경 기반 인쇄산업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쇄산업 환경의 변화는 아날로그적 개념의 인쇄산업의 위기이자, 신개념 인쇄산

업의 중흥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디지로그의 개념을 인쇄산업 전반에 도입하고, 효율적인 인력의 양성 및 소재, 시스템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아이템의 발굴과 국가적 역량을 집약한 집중적인 지원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쇄관련 산업은 그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하여는 현실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자세를 버리고,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짚어보는 안목과 그에 대처하는 혜안을 갖추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동국대학교에서 산업대학원내에 인쇄화상전공을 개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교라는 무대에서 인쇄인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발전적인 정책의 제시하며, 차세대 인쇄산업을 이끌어 나아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서울경기지역의 유일한 인쇄관련 대학원 과정인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의 인쇄화상전공은 2004년 9월 제1기 1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기에 걸쳐 32명이 입학하여 학문의 정진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첫 졸업생의 배출을 앞두고 있다.

인쇄화상전공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쇄화상분야에 관한 실무식과 새로운 기술의 교육을 통하여 인쇄공업 전 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을 육성” 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짧은 역사와 특수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과정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인쇄화상전공은 빠른 속도로 제도적인 정착을 이룩하고 전문 교육과정으로써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모든 산업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력의 양성에 있다.

동국대학교 인쇄화상전공은 인쇄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력배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차세대 인쇄산업의 클러스터 화를 위한 종합 네트워크 구축과 차세대 인쇄산업을 뒷받침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개편 운영하는 “순환적 자율개선식 교과운영”을 실시하며, 국제교류확대, 인쇄관련 소재개발 연구기반 구축 등을 착실히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향후 산업 환경의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며, 인쇄산업 또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최초로 금속활자인쇄를 실현한 나라로써 자부심과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